

園林

果實

池沼

舟楫

橋梁

燕飛

杜謔

十五

木  
十  
號  
社

分類杜工部詩卷之十五

園林古詩三首

律詩二十四首

樂遊園歌

甫自註晦日賀蘭揚長  
文八筵中作이라

樂遊古園萃森爽烟絲碧草萋萋長

樂遊人

上과거늘호니니버므렛는  
은프리다부다부기기릿도다公子萃筵勢

最高秦川對酒平如掌

○公子는指長史이라  
○公子의빛난뜻기

勢對호니푸호미手掌근도다長生木瓢示

真率更調鞍馬狂歡賞

脩長而生者니蓋  
長生木瓢는瓢柄

用此酌酒하니即是真率也이라○일에 내  
와  
근  
바  
근  
眞  
率  
호  
든  
리  
니  
다  
시  
기  
르

러  
마  
지  
흔  
리  
은  
調  
習  
하  
야  
어  
青春波浪芙蓉園

白日雷霆夾城仗芙蓉園 | 在曲江하 | 禁夾城

호  
리  
自大明宮○로至曲江芙蓉園하고  
天

聲  
이  
라  
○青春에  
문  
지  
은  
芙蓉園 | 오  
白  
閣

日  
옛  
雷  
霆  
人  
소  
리  
는  
夾  
城  
에  
儀  
仗  
로  
다  
閣

閣  
晴  
開  
談  
蕩  
蕩  
曲  
江  
翠  
幕  
排  
銀  
榜  
談  
니  
은  
음  
送

○蕩은  
天  
體  
堅  
清  
之  
狀  
라  
銀  
榜  
은  
額  
字  
라  
○閣  
間  
閣  
을  
건  
나  
래  
여  
니  
談  
蕩  
蕩  
하  
고  
曲  
江  
人

榜  
은  
帳  
幕  
안  
銀  
拂  
水  
低  
回  
舞  
袖  
翻  
綠  
雲  
清  
切

歌聲上매르를별터나스기  
뜻도는춤츠는스  
구름바라清切흐늘

엇소리오却憶年年人醉時  
只今未醉已先

悲도러히하마다사  
름醉던지글스랑코  
이제醉타아니하야  
셔하마몬셔슬노라

數莖白髮那拋得百罰深  
盃亦不辭두어즐

리러리를어느비리리  
오온번罰하聖朝已

知賤士醜一物自荷  
皇天慈賤士一物은  
皆

向는言朝廷知甫의  
過惡하야쓰디아니  
하를시라下句는言甫  
論房하다하天子

스思慈를니블시라  
○聖朝하마賤士의  
더러우물아리스니  
一物이쓰스로皇天入

五  
二

恩慈 을 나 此身飲罷無歸處獨立蒼茫自詠

詩 고 발 리 업 시 호 오 아 석 이 미 슬 어 금 이

라 입 노

阻雨不得歸灤西甘林

三伏適已過驕陽化為霖 驕陽은 너 름 고 只

變化 호 아 호 아 마 디 나 나 驕 陽 이 欲 歸 灤 西 宅 阻

此江浦深灤西人 기 지 비 가 고 져 호 나 이 壞舟

百板圻峻岸復萬尋 은 온 너 리 비 덧 고 노 문

두늘근도다 萬尋 篙工初一棄恐泥勞可心

이 나하도다 萬尋 篙工初一棄恐泥勞可心 泥 佇立東城

隅 悵望高飛禽 如飛禽也 東城人모

해오래서서노라 피노라 가 草堂亂玄圃不隔

崑崙峯 草堂 玄圃 와 草堂亂玄圃不隔 昏

渾衣裳外曠絕同層陰 昏陰昏也 昏

드키내 吳맛근민 仲히 園甘長成時三寸

가 지로 여러 吳맛근민 仲히 園甘長成時三寸 諸侯

如黃金 寸위안한柑子 不릴 諸侯

舊上計厥貢傾千林計는 甘子上貢人數는

計수프름을 올이 나그貢을 드문邦人不足重所

迫豪吏侵不言邦人林也逼於豪吏의 侵奪하야

豪吏의 侵奪호매 逼하야 나라 客居暫封

殖日夜偶瑤琴偶瑤琴은 甘子심기 瑤琴과

사로 매 샅간 시 거 낮 밤 물 虛徐五株態側塞

煩宵襟此는 阻兩하야 가 보디 못하사려

못하다 夕株入 양 지 가 스 매 焉得輟兩足杖



藜出嶇嶇

言兩山而歸甘林也 杖藜出嶇嶇之

公빛바리리국기든도도랏디 條流數翠實復

息歸碧潯와 푸른가디 예 흘려 푸른여르문혜

리拂拭烏皮几喜聞樵牧音令兒快搔背脫

我頭上簪 여서나모지며묘쇼어기논놀엇

기소리를즐거듯고아히로현히등어리큰

甘林

捨舟越西岡入林解我衣 自東屯으로乘舟

라○비부리고西人 덕외 혼나 青芻適馬性

好鳥知人歸 프른 性이 아니요

다晨光映遠 當夕露見日 晞그리비치면의

보아미스른히 遲暮少寢食 清曠喜荆蘇

를가서 否과 밤 먹기 와져그나 經過倦俗態

在野無所違 倦俗態는困於俗人의 薄惡也

나에 又가하다나 在 試問甘藜藿

未肯羨輕肥 藜藿 甘藜藿

브러 호미란 즐기 喧靜不同科 出處各天機

喧雜 호미 寂靜 호미 科等 호미 又디 아 니 호미

勿矜朱門是陋此白屋非朱門은公卿之門

門으란을 호미 니라 호미 자랑 호미 고이서 明朝

步隣里長老可以依 거로트날 아츠 비이우제

可히브다 時危賦歛數脫粟為甬揮 時節

야賦歛 不不니 것바 호노라 相携行豆田秋

花諷菲菲 바티녀보니고 였고 지盛 호야菲



奉陪鄭駙馬韋曲二首

韋曲花無賴家家惱殺人

고디사그미고  
물어조럽게흔시

無賴라하다○韋曲엇고조  
업도다집마다셔사름물고  
놀이낫다 詠樽

須盡日白髮好禁春

好禁春은白髮  
에맛디아니하야  
遊賞

문흔뜻호되南  
노니이이귀사라○  
詠樽으로모로매나  
다○드득어글디니  
리보물도위이과  
나 石角鉤衣破藤枝

다○드득어글디니  
리보물도위이과  
나 石角鉤衣破藤枝

刺眼新

들다른오스  
다가지는누늘  
거위어혈우고  
藤 何時

占叢竹頭戴小烏巾

어느제필깃대  
하야머리에저  
근거문 占得

頭巾을 쓰고  
이 시려뇨

野寺垂楊裏春睡亂水間  
의해려큰드린비  
스기오뵈반두

들근이어즈러운  
美花多映竹好鳥不歸山  
도

고디해대예비취엇고도호새  
되해가디아니호야잇도다  
城郭終何事

風塵豈駐顏  
言奔走城郭風塵間易為老

매르스이리이시리오風塵  
어느저은나출어물우리오  
誰能共公子

薄暮欲俱還  
此是甫欲留駐於此也

으르메흠씨도라  
가고저호리오



百頃風潭上千章夏木清大材曰章이라

부는 못우희즈은 나 卑枝低結子接葉暗巢

鶯는 가온가기엔미존미리어득은은은

다 鮮鯽銀絲膾香芥碧澗羹銀絲又直膾는 鮮直鯽魚

고 프 르 시 커 헛 기 스 로 잉 고 翻疑施樓底晚

飯越中行施는 正船木也 | 日施樓는 船上

樓人미耳何나뒤밤먹고越 人中에何何는가하노라

萬里戎王子何年別月支戎王子는 月支國 人花名이라 萬



異花開絕域滋蔓  
異花開絕域滋蔓

西清池  
奇異言고지언고애셔피터니퍼잇

漢使徒空到神農竟不知  
言張審一使西域

고神農人本草에亦不載고리라漢人使

者  
一言及취여가고神農도只六애아디문

라  
고니露翻無雨打開坼漸離披이스리두우

漸  
조취고니퍼漸

旁舍連高竹疎籬帶晚花  
이리예니잇고설



梅고花블人근여거르기미터슬테전시도니대비銀甲彈箏角用金

魚換酒來銀으로로딩고론수瓜甲은箏또매대

興移無海掃隨意坐蒼苔乘興하야을마쓰

들조차프른이식안조라

風磴吹陰雪雲門吼瀑泉엔어드운누니물

이코구름인山門엔酒醒思卧簟衣冷欲裝

瀑布우르늦다酒醒思卧簟衣冷欲裝

野老來着客河魚不取錢只疑淳朴處自有

一山川의 헛늘근사름미와나그벌보아고  
러헛고기에도늘밧디아니하느니

오직疑心호되淳朴호사히스  
스로호산이잇는가호노라

棘樹寒雲色茵蘆春藕香  
棘樹는 호근고茵蘆은 호분蓮

人불휘공다脆添生菜羨陰益食簞涼  
호호도다脆添生菜羨陰益食簞涼

竹器라生菜는指茵蘆라陰은棘樹之陰  
也라○보드라온生菜一도호니를더이

받느니고늘호밤다문그野鶴清晨出山精  
르셋서늘호물더으느다野鶴清晨出山精

白日藏山精은如人호니一是호오長一三  
四尺一니食山蠅호고夜出晝藏호

니라○미헛鶴은물근새비石林蟠水府  
빛고외아리는나죄말헛도다石林蟠水府

百里獨蒼蒼

돌은 안는 수프 레 水府 1 서릿나  
니百里 예호을 로퍼리호얏도

다

憶過揚柳渚走馬定昆池

버드나모선문  
로로디나定昆池

醉把青荷葉狂遺白接羅

醉把 青荷葉은酒孟라白接羅는巾也 1 라이는  
슬먹노라을위니頭巾 1 버서달시라 0 醉

刺船思郢客解水

코프른蓮니플자바어리  
이白接羅를버서디요라  
乞吳兒 郢客吳兒는비달호는사리미라乞  
는丘既反호니출시라言欲得郢客

호야刺船而遊호다니吳兒를己與之也 1  
라 0 릿대디르는郢客을스랑호다니을아

坐對秦山晚江湖興頗隨秦山

江湖興心相對

床前樹拂雲

將軍不好武稚子搃能文

醒酒微風入

聽詩靜夜分

絺衣掛蘿薜涼月白紛紛

絺衣掛蘿薜

紛紛

幽意忽不愜歸期無奈何

言欲還而幽賞之意一忽然不愜也

나도라갈期約이라잇데호려호미업도

出門流水往回首白雲多

此水雲也

○門의나보니호르느문도잇고며

自笑燈

前舞誰憐醉後歌

블현알피셔춤츠던이르내웃노니醉後에브르

愛憐호려호되應與朋好風雨亦來過

이버드도다只호야비름비에도호을디로다

重過何氏五首

問訊東橋竹將軍有報書倒衣還命駕高枕

乃吾廬言問訊而得將軍의 報書고 即命

家也駕而來고야 高枕而卧호니 即同吾

荅호 글 위 리 잇 도 다 오 슬 갓 고 르 니 버 도 로

출 위 며 여 타 와 버 게 노 피 花 妥 鶯 捐 蝶 溪 喧

用 여 누 우 니 내 집 근 도 다

獺 趁 魚妥는 江東人 一 謂 落 為 妥 一 니 言 花

水獺를 티고 시 내 우 르 니 重 來 休 沐 地 真 作

野 人 居野人은 甫 一 自 謂 라 이 는 將 軍 休 沐

며 沐 浴 호 는 짜 해 다 시 오 니 眞 實 로 내 사 는 지 미 드 외 옛 도 다



山兩樽仍在沙沉榻未移 言前日所設之樽

라○ 뒷비에 酒樽 | 仍하야 잇고 물애 무 犬

迎曾宿客鴉護落巢兒 가히는 일 즉 와 잔 소

세디는 샷기 큰 雲薄翠微寺天清皇子陂 구

문翠微寺애 열 잇고 하느 向來幽興極步履

過東籬 요스이에 幽深 흥 | 장흥시

落日平臺上春風啜茗時 다는 햇 플랫폼우

石欄斜點筆桐葉坐題詩 돌欄干에

부들 무척여 깃니 피  
안자셔 그를 스느라  
翡翠鳴衣桁蜻蜒立釣

系新은去聲이니橫木이라  
○翡翠는 옥기  
자리는 고기 낚는 주리

다섯도  
自今幽興熟來往亦無期  
幽深은 흥

니그니오며가물도  
期約업시흐디로다

頗恹朝參懶應耽野趣長  
此는言我  
常恹

하다니乃耽野趣故也  
○朝參게을  
이흥물조모恹異히너기다니  
미흥興趣기

두를당당히  
兩拋金鎖甲苔卧綠沉槍  
綠沉

武也  
色으로  
沉沫其柄也  
니此는皆言不好  
니라  
○비에  
는  
외로  
일  
군  
甲이  
비  
렸

고 이 신 푸 른 칠 훈  
手自移蒲柳家纔足稻梁

손오로 제蒲柳를 움  
지 본애야라稻梁 | 足  
심 밧도 소니  
看君用

幽意白日到義皇  
而見 | 니라 | 그디의幽

深 意 矣 必 是 未 見 也  
도 義 皇 애 가 리 로 다

到此應嘗宿相留可判年  
判年 是 半 年 也 |

미 일 즉 차 니 셔 로 매 으 로  
미 어 루 半 히 나 하 도 다  
蹉跎暮容色悵望好

林泉 蹉跎 老 之 容 色 悵 望 好  
也 | 言 我 | 以

도 言 林 泉 을 슬 허 비 라 노 라  
何 日 霑 微 祿

歸山買薄田斯遊恐不遂把酒意茫然

적고 맛祿은 저저 뛰해가사오나온바 들사  
려호이노로 물일우디몬홀가저후니수들

자바서뜨디  
호호예라

園

仲夏流多水清晨向小園

仲夏에 한므리호  
르니 물근 새배

小園을向  
호야오라

碧溪搖艇閑朱果爛枝煩

프른시  
내호비

은가이어오매어위니블근果實  
가저예므르니거하도다

始為江山靜

終防市井喧

이園임그로모為江山之靜  
니모츠엔市井之喧亦無也



오 藥水入 두 들 번 비  
물애 른 물 허 늦 다  
問俗營寒事將詩待物

華 言見物華而作詩也  
차 위 옛 이 른 일 우 고 그  
라 〇 風俗은 물 어 리

비 출 待 接  
하 노 라

### 寒雨朝行視園樹

柴門雜樹向千株  
丹橘黃甘此地無  
雜柴門 옛

스 른 나 치 드 외 야 가 나 나 블  
와 누 른 甘 子 는 이 사 해 업 도 다  
근 橘 江上今朝

寒雨歇籬中  
秀色盡屏紆  
고 룬 우 희 오  
대 치 은 비 歇

나 風 에 버 드 렷 느 드  
하 온 뒤 드 하 비 춘 그  
다 린 樾 蹊 李 徑 年 雖

故掩子紅椒豔色殊 부경화선길과외얏선  
김히히미록오라나

子와紅椒와는고온  
비치殊異호도다 鑿石藤梢元自落到天

松骨見來枯 돌해얼  
제드렛고하늘해니르렛호소

남고보매이  
우렛도다 林香出實垂將盡葉帶辭枝不

重蘇 수프레  
엽수매다드라고남고여르물내여향초

를여회여다  
이니은호호 中愛日恩光蒙借貸清霜相殺氣

得憂虞 愛日은冬日  
로不憂清霜殺氣之凜冽也 一니라

○스랑호온히이  
부니물근서라이 殺氣를시리름호리

詩一  
卷一

衰顏動見藜床坐緩步仍須竹杖扶

여민 거다 마다 도트 랫平床을 어더 았고 날 회  
散

騎未知雲閣處啼猿僻在楚山隅

尚書工部員外之署而今在楚山也  
○散騎省人구름인집잇는석  
幽

辭로 소나 남우는 해  
僻히 楚山人모했잇노라

將別巫峽贈南卿兄  
灑西果園四

十畝

苔竹素所好萍蓬無定居  
잇무든이논본뒤  
로즐기논기시언





東坡詩集卷之三

드리잠간 托贈卿家有回歌野興疎그릿지

주어두게호고의疎 殘生逗江漢何

處狎漁樵衰殘호인생애江漢으로가노니

親狎호

課小豎호鉏斫舍址果林의 枝蔓荒穢

호淨訖고移床호三首

病枕依茅棟荒鉏淨果林病엇며개를새지

호背堂資僻遠在野興清潔지블

조개호라

을 背堂資僻遠在野興清潔지블



并言二三

面全身學馬蹄

上句止用人面獸心之義言  
다 莊子州馬蹄一可以踐霜

言全生是順其真性也  
此馬之真性也  
此是

俗은 자름의 나 출막  
을 에 호미 관 물과 름의 호는  
라 음 吟詩坐回首

隨意葛巾低 그 름이 프여  
하 비 라 고 쓰 들 조 차  
고 쓰 들 조 차 葛巾을

하노라기

籬弱門何向沙虛岸只權

어 드 리 나  
어 드 리 나

물 에 섭 거 우 나 두 들  
기 오 직 물 거 더 나 日斜魚更食客散鳥還

來 소 회 나 훗 나 늘 세 도 로 오  
나 훗 나 늘 세 도 로 오 寒水光難定

秋山響音易哀 촌므로 큰비치 一定호미어덜고

天涯稍曛黑倚杖更徘徊 하늘그이저기어

모다서미  
모르라미

果實 古詩一首 律詩十一首

園人送瓜

江間雖炎瘴瓜熟亦不早 그곳스이비록

이허도다아栢公鎮夔國滯務茲一掃 栢公은

鎮定하시니留滯이름食新先戰士共少

及溪老 溪老 是南 一 而言 食新瓜 而先給戰

所 及 戰 士 而 又 及 於 南 也 一 言 戰 士 而 先 給 戰 所 及 戰 士 而 先 給 戰

篋蒲鵠 青蒲眼顏色好 篋 是竹器 名 一 也 蒲 是 竹 器 名 一 也

우리니 蒲鵠 一 也 下 一 也 竹竿接嵌實引注

來鳥道 謂接筒引水也 一 也 鳥道 是言山高

를 하 浮 沉 亂 水 玉 愛 惜 如 芝

草 水玉 是 水精 一 也 言 以 水 玉 也 一 也 浮 沉 亂 水 玉 愛 惜 如 芝

호 야 水玉 一 也 草 一 也 落 刃 露 木 露

開懷慰枯槁 고름해디여 氷霜 고름니 枯槁 고름 許 호디 小童 아름

勞 호 許 호 以秋蒨 이추견 除仍者 초영저 小童抱 호디 許 호디 小童 아름

知 호 小童 아름 以 이 秋蒨 이추견 除 초 仍者 영저 小童抱 호디 許 호디 小童 아름

詩園人非故侯種此何草草 草草는辛苦貞 園人 원인 非故侯 비고후 種此 종이 何草草 호초초

外 호 園人 원인 非故侯 비고후 種此 종이 何草草 호초초 園人 원인 非故侯 비고후 種此 종이 何草草 호초초

東陵 의 園人 원인 非故侯 비고후 種此 종이 何草草 호초초 園人 원인 非故侯 비고후 種此 종이 何草草 호초초

草 호 園人 원인 非故侯 비고후 種此 종이 何草草 호초초 園人 원인 非故侯 비고후 種此 종이 何草草 호초초

詣徐卿覓果子栽

草堂少花今欲栽不問綠李與黃梅草堂에

글씨이 제시무고저하야프른의얏과石筍  
늘른梅花를큰히야분디아니하노라과石筍

街中却歸去果園坊裏為求來石筍人詩가

가果園坊入안해為  
하야어드나오라

### 甘園

春日清江岸千甘二頃園봄내물고고고고  
들게즈문간子人

남이 두이림만 靑雲着葉密白雪避花繁프

구루미나피취취호물벗그리고 結子隨邊  
힌누나피취취호물벗그리고 結子隨邊



使開筒近至尊

筒은 盛甘之筒이라 오여름  
여러 邊方 使 者 來 到 筒

은 여러 日 金 後 於 桃李 熟 終 得 獻 金 門 景 福

화 와 외 얏 져 니 구 매 後 호 되 只 未  
매 시 러 金 門 에 進 獻 ㅎ ㄴ ㄴ 다

解悶五首

一 辭 故 園 十 經 秋 每 見 秋 瓜 憶 故 丘  
故 園 을 여

외 日 오 매 열 고 은 ㅎ ㄴ 다 네 오 니 미 양 고 ㄴ ㄴ  
외 日 來 보 고 네 사 년 許 ㅎ ㄴ 스 랑 ㅎ ㄴ 노 라 ㄴ ㄴ 今 日

南 湖 采 薇 蕨 何 人 為 覓 鄭 瓜 州  
鄭 瓜 州 是 指

은 因 瓜 而 憶 鄭 瓜 州 也 一 라 〇 오 ㄴ ㄴ 南 湖  
애 셔 고 사 티 ㄴ ㄴ ㄴ 노 니 어 느 사 ㄴ ㄴ 미 날 為 ㅎ ㄴ

이 鄭永州 州 邑

先帝貴妃俱寂寞荔枝還復入長安  
楊貴妃 嗜荔枝

枝고 더 나 라 ○ 先帝와 貴妃와 다 寂寞호 디  
荔枝 是도 로 하여 長安 〇 로 드 리 오 는 다

炎方每續朱櫻獻玉座應悲白露團  
玉座 卽御座

라 團 〇 은 露 凝 貞 一 다 玄 宗 一 自 蜀 〇 로 還  
호 牛 嶺 南 一 進 荔枝 호 야 는 感 念 楊 妃 호 야

不覺悲慟호 시 나 라 ○ 더 은 々 해 서 미 양 이  
스 라 출 니 어 進 獻 호 디 나 玉 座 에 서 당 당 이

흰 이 스 리 도 려 오  
물 슬 흐 시 나 라

憶過瀘戎摘荔枝青楓隱映石逶迤  
瀘戎은 蜀中二



以生於遠地故以爲貴也。라。○可히  
三도 다 분 석 가 지 와 나 출 외 다 르 다 아 니 건  
야 는 이 기 시 고 아 장  
常 먼 더 서 날 서 니 라

側生野岸及江浦不熟丹宮滿玉壺戎夔人

로爲滿라此는言求荔枝於遠方也。라  
○이 헛 두 들 파 고 장滿애 고 이 더 는 니 분 근

宮殿애 서 부 니 아 나 호 더 雲壑布衣鮫背死

勞入害馬翠眉頰鮫背는 老人 背有 鮫文

書諫荔枝하니 라翠眉는 美人 背有 貴妃  
라。○ 구름 인 빛 고 리트 외 못 니 분 등 어 리 어 르

느 근 사 례 주 그 니 사 르 몬 또 비 여  
를 害 하 야 翠眉 爲 하 야 어 더 오 못 다

題桃樹

小逕升堂舊不斜五株桃樹亦從遮言升堂小逕

昔時也直入不斜也今日也桃樹也遮也

기우더하니하더니하더니하더니하  
기우더하니하더니하더니하더니하  
기우더하니하더니하더니하더니하  
기우더하니하더니하더니하더니하  
기우더하니하더니하더니하더니하

飢貧人實來歲還舒滿眼花此言

노예노예노예노예노예노예노예노예  
노예노예노예노예노예노예노예노예  
노예노예노예노예노예노예노예노예  
노예노예노예노예노예노예노예노예  
노예노예노예노예노예노예노예노예

리니오노히엔도로누네簾戶每宜通乳燕

兒童莫信打慈鴉信是聽信也



熟捺香적근아히幽園에에셔오니가리山風

猶滿把野露及新嘗배외해는소배기두호호러자

니미햇이스리새歌枕江湖客提携日月長

버개에기우릿는江湖엔나그  
내잡드런디나드리길어다

野人送朱櫻

西蜀櫻桃也自紅野人相贈滿筠籠西蜀이스라

치도제블그니리햇사리서數回細寫愁

仍破萬顆勻圓訝許同두어다위를가리

름호노니 一萬나치플오 두리우  
니덕리히 온호물疑心호노라 憶昨賜露

門下省退朝擎出大明宮 遺時事 言拾

朝會문리大明宮으로 주어시든 露恩호야

金盤玉筋無消息 此日嘗新任轉蓬 金盤玉

纓 時所用之器라 此言不復受賜也

라 호물보고다 북을마는 此言不復受賜也

蕭八明府寔處覓栽

奉乞栽我一百根 春前為送浣花村 栽種一





公樓要上邀同公山簡已鎮襄陽

秋月簡外登南樓公以比鄭監公樓外靜

磨滅餘篇翰平生一釣舟此是南磨滅

而唯有詩篇釣舟而已公磨滅公磨滅

高唐寒浪滅鬢髻識昭丘昭丘在南

乘艇往訪也公高唐人公高唐

新作湖邊宅還聞賓客過公昭丘

自須開竹徑誰道避雲蘿言開

而待賓客하니非隱避雲蘿者하니다하스  
석로모로덴엇수피길흔이러내니니  
오디雲蘿애隱避

官序潘生拙才名賈誼多

潘岳仕宦不達하니다此는皆喻鄭監하  
다○州會次第는潘生一疎拙하고저조하

是일후문賈捨舟應卜地鄰接意如何有發

亭而卜居也라○비를브리고당당이사  
를件言占卜호리니어우계부들쁘다엇디

暫住蓬萊閣終為江海人鄭審一昔為秘書

監而今在江海也

一라○蓬萊閣에간어글오只揮金應物

理拖玉豈吾身

揮金也。謂散金。亦買酒食。也。라拖玉은卽佩玉之意。

라○黃金을揮散하교이당당하物理그

오義煮秋尊弱盃迎露菊新  
보드라오년글

司고잔오이슬마조 菊賦詩分氣象佳句莫

頻頻言鄭監一分甫以賦詩之氣象 佳句

叫氣象은는화주니도호  
은句는호니아니호니아

暮春陪李尚書李中丞過鄭監湖亭

舟得過字

海內文章伯湖邊意緒多  
海內 옛文章이 위  
두흐사름이그르

玉樽移晚興桂楫帶酣歌  
玉樽을  
나첫興

春日繁魚鳥  
이음기나나桂楫은醉호야셔  
브르논늘애를帶호옛도다

江天足芰荷  
봄나래고말기과와새외하고그  
하늘해말암과蓮패足호도다

鄭莊賓客地衰白遠來過  
鄭當時의字莊  
니置驛馬長安

諸郊야請謝賓客호다  
니此鄭監호어

鄭莊의손請接호는  
야하늘기선어리어

晚秋陪嚴鄭公摩訶池泛舟得溪字

湍駛風醒酒船行霧起隄

을설리흐르노디  
비르미수름서오

두늘개비터가어안개

高城秋自落雜樹晚相

迷

도은城에고을서지전로디  
남고나조히서르迷失호리르다

雜坐觸

鴛鴦起巢傾翡翠低

안자서鴛鴦은다결어  
날개호나기서기우나

翡翠到다莫須鴛白鷺為伴宿青溪

모로개  
白鷺를

그를러다아라번하야  
靑溪에잘지르다

陪王漢州中  
留杜繇州中  
泛房公西

湖  
호라房琯  
刻史詩에而鑿  
為漢州

舊相思追後春池賞不稀房瑄自漢州刺

書하나라○或宰相一恩命으로 불려간後

에 불도새賞玩호미드르디아나하도다

關庭分未到舟楫有光輝言在縣州一時未

舟楫一有光輝也一라分은去聲一라○大

關人一말려分一나르디吳호니비옛비나미

잇도鼓化尊絲熟刀鳴膾縷飛鼓尊을同煮

라○전구기노고나尊人시리一使君雙皂

고갈히우나膾一실고치는矢中

蓋灘淺正相依使君의 두가문蓋一여흔여

答楊梓州

悶到房公池水頭坐逢楊子鎮東州房公의

뜻 東州의 狀이다가 안자 揚子 却向 靑溪 不相

見回 鯨應載阿戎遊此 別有一時事 向

의 狀이 阿戎은 示 려 놀리 로 다

與任城許主簿遊南池

秋水通溝洫城隅集小舫溝洫에

모 晚涼看洗馬森木亂鳴蟬시

호 麥熟經時雨



蒲荒八月天 말와르時節은디내오는리예

晨朝降白露 고즐피는八月入하늘하

遙憶舊青氈 盜賊더브

리닐오리靑氈은我家舊物이니두고가라  
하나라는言時已近寒훈치欲得靑氈而  
프른사우글야이라히사랑하노라

### 溪上

峽內淹留客 峽안해와머드는

溪邊四五家 여시벗고

古蒼生 비로다 迹地 아로다 秋竹 고 隱疎花 고

塞俗 고

入無井山田飯有沙

邊塞 옛風俗은사근미  
우므리업스니 뒷바린

잇바 배를애 西江使船至時復問京華

西人덕  
使臣의 비와 시니 때로  
佐 申을 이를문노라

舟楫律詩十二首

放船

送客蒼溪縣山寒雨不開

蒼溪縣에서 소늘  
보내요니 외히

고비 번히여디 直愁騎馬滑故作泛舟迴

공문

로매 뒷그러우를시름하야부  
러비 비위도라오물지오라

青惜峯巒過

黃知橘柚來 프른거스란峯巒의디나가문  
앗기고누른거스란橘柚이오

江流大自在坐隱興悠哉 그르미흥  
루미기自

存하니안자쇼이편안  
하니興이기리나는다

數陪李梓州泛江有女樂在諸舫戲為

豔曲二首

上客回空騎佳人蒲近船 公謂送馬言昨載來  
也이라노은

江清歌扇 이빈이르든들아보이니고온사  
이갓가온비에고드고엿도다

底野曠舞衣前 그르미놀거브르  
삼문갓고드르호춤츠는  
吳

詩經卷之三  
卷之三

言  
玉袖凌風並金壺隱浪偏玉  
言  
玉袖凌風並金壺隱浪偏玉

日  
競將明媚  
日  
競將明媚

色偷眼豔陽天  
色偷眼豔陽天

月  
豔陽天  
月  
豔陽天

白日移歌袖青霄近笛床  
白日移歌袖青霄近笛床

翠眉縈度曲雲鬢儼分  
翠眉縈度曲雲鬢儼分

行  
儼然  
行  
儼然

立馬千山暮回舟一水香  
立馬千山暮回舟一水香

므  
리  
곳  
다  
온  
디  
使  
君  
自  
有  
婦  
莫  
學  
野  
鴛  
鴦  
謂  
戒  
勿  
愛  
佳  
人  
也  
○  
使  
君  
一  
스  
의  
로  
겨  
지  
비  
잇  
는  
나  
의  
옛  
鴛  
鴦  
이  
를  
비  
호  
디  
말  
라

陪諸貴公子丈八溝携妓納涼晚際遇

兩二首

落日放船好  
輕風生浪遲  
호디는히예비를노

야  
온  
비  
리  
에  
묵  
블  
竹  
深  
留  
客  
處  
荷  
淨  
納  
涼  
時

어  
는  
손  
머  
물  
왔  
는  
부  
해  
갑  
고  
蓮  
은  
公  
子  
調  
冰

水  
佳  
人  
雪  
藕  
絲  
公  
子  
는  
어  
름  
으  
를  
調  
和  
하  
고  
시  
를  
잇  
는

다 片雲頭上黑應是兩催詩 片雲! 머리 우

이 비 글 지 우  
물 비 아 늦 다

兩來露席上風惡打舷頭 나 비 와 우 글 지 지

越女紅裙濕燕姬翠黛愁 로 黛는 以 黛

라 越人 거 지 비 분 근 3 의 직 고 燕 纜侵

堤柳繫幔卷浪花浮 犯 추 를 두 들 겠 버 드 를

리 歸路 翻 蒲 颯 波 塘 五 月 秋 도 다

塘 五 月 秋 波

泛江

方舟不用楫極目愁無波

方舟는 並兩船也

長日容盃酒

長日容盃酒

深江淨綺羅

深江淨綺羅

亂離還奏樂飄泊且聽歌

亂離還奏樂飄泊且聽歌

故國流清渭如今花正多

故國流清渭如今花正多

水甫 一思故鄉之景物 一故國에 是은 渭

陪王使君晦日泛江就黃家亭子二首

山齋何時斷江平不肯流되거 현하니 어느

미 후하니 즐겨흐다稍知花改岸始驗鳥隨舟

비타가며보는이름나라○저기 고지  
두들게改變호는 들알며 비르서 새비르듯

로 돌아 結束多紅粉歡娛恨白頭미 무은사

이하니 歡娛호매 非君愛人容晦日更添愁

음 | 正月晦日 為令節 호나라 ○그 뒤  
나그 배를 사랑티아니 호터든 그 몸 나래  
어시 르물러

으리 랫다

有徑金沙軟無人碧草芳  
金沙는 沙色 | 如  
金 | 라 ○ 길 잇는



뒤 금 고 든 물 에 보 다 라 오 니 다 야 哇 連 蛺 蝶

江檻俯鴛鴦 엇 기 를 고 러 문 나 베 는 디 니

倚臨 하 日晚烟花亂風生錦繡香 히 나 조 히

엇도 다 不須吹 憑 管 衰 老

易悲傷 마 를 디 니 는 거 쉬 이 슬 로 라

進艇

南京久客耕南畝北望傷神卧北窓 南 京 人

精神 을 슬 허 쉬 산 덕 을 어 누 엇 노 라 畫引

老妻乘小艇晴看稚子浴清江지늘근거

俱飛蛺蝶모든것들이

元相逐並帶芙蓉본래제이本自雙본래

茗飲蔗漿고고리큰은芙蓉은將水茗所飲有蔗鬢漿

無謝王為缸차와子漿은그르시오로빙고문

缸아니에서디디아니도다

城西陂泛舟

青蛾皓齒任樓船橫笛短簫悲遠天蛾齒

佳人<sub>佳</sub>人之眉似之<sub>人</sub>나라<sub>之</sub>프른<sub>나</sub>눈<sub>라</sub>과<sub>○</sub>한<sub>눈</sub>나<sub>의</sub>  
樓<sub>樓</sub>船<sub>船</sub>에<sub>에</sub>잇<sub>잇</sub>는<sub>는</sub>나<sub>나</sub>빛<sub>빛</sub>근<sub>근</sub>더<sub>더</sub>와<sub>와</sub>더<sub>더</sub>른<sub>른</sub>피<sub>피</sub>리<sub>리</sub>면<sub>면</sub>하<sub>하</sub>는<sub>는</sub>

해<sub>해</sub>슬<sub>슬</sub>의<sub>의</sub>春<sub>春</sub>風<sub>風</sub>自<sub>自</sub>信<sub>信</sub>牙<sub>牙</sub>檣<sub>檣</sub>動<sub>動</sub>遲<sub>遲</sub>日<sub>日</sub>徐<sub>徐</sub>省<sub>省</sub>錦<sub>錦</sub>纜<sub>纜</sub>牽<sub>牽</sub>

牙<sub>牙</sub>檣<sub>檣</sub>은<sub>은</sub>檣<sub>檣</sub>端<sub>端</sub>如<sub>如</sub>牙<sub>牙</sub>也<sub>也</sub>라<sub>라</sub>○<sub>○</sub>북<sub>북</sub>부<sub>부</sub>러<sub>러</sub>매<sub>매</sub>나<sub>나</sub>빛<sub>빛</sub>  
대<sub>대</sub>뒤<sub>뒤</sub>유<sub>유</sub>물<sub>물</sub>민<sub>민</sub>노<sub>노</sub>나<sub>나</sub>간<sub>간</sub>히<sub>히</sub>예<sub>예</sub>날<sub>날</sub>호<sub>호</sub>야<sub>야</sub>서<sub>서</sub>錦<sub>錦</sub>纜<sub>纜</sub>것

보<sub>보</sub>거<sub>거</sub>노<sub>노</sub>라<sub>라</sub>魚<sub>魚</sub>吹<sub>吹</sub>細<sub>細</sub>浪<sub>浪</sub>搖<sub>搖</sub>歌<sub>歌</sub>扇<sub>扇</sub>燕<sub>燕</sub>蹴<sub>蹴</sub>飛<sub>飛</sub>花<sub>花</sub>落<sub>落</sub>舞<sub>舞</sub>筵<sub>筵</sub>

歌<sub>歌</sub>扇<sub>扇</sub>은<sub>은</sub>所<sub>所</sub>以<sub>以</sub>掩<sub>掩</sub>口<sub>口</sub>遮<sub>遮</sub>羞<sub>羞</sub>也<sub>也</sub>라<sub>라</sub>○<sub>○</sub>고<sub>고</sub>기<sub>기</sub>는<sub>는</sub>  
는<sub>는</sub>물<sub>물</sub>거<sub>거</sub>를<sub>를</sub>부<sub>부</sub>러<sub>러</sub>늘<sub>늘</sub>애<sub>애</sub>브<sub>브</sub>르<sub>르</sub>는<sub>는</sub>부<sub>부</sub>쳐<sub>쳐</sub>를<sub>를</sub>이<sub>이</sub>거<sub>거</sub>고

저<sub>저</sub>비<sub>비</sub>는<sub>는</sub>는<sub>는</sub>고<sub>고</sub>출<sub>출</sub>막<sub>막</sub>차<sub>차</sub>不<sub>不</sub>有<sub>有</sub>小<sub>小</sub>舟<sub>舟</sub>能<sub>能</sub>盪<sub>盪</sub>漿<sub>漿</sub>百<sub>百</sub>

壺<sub>壺</sub>那<sub>那</sub>送<sub>送</sub>酒<sub>酒</sub>如<sub>如</sub>泉<sub>泉</sub>而<sub>而</sub>來<sub>來</sub>也<sub>也</sub>라<sub>라</sub>○<sub>○</sub>조<sub>조</sub>고<sub>고</sub>맛<sub>맛</sub>은<sub>은</sub>비<sub>비</sub>

를<sub>를</sub>能<sub>能</sub>히<sub>히</sub>비<sub>비</sub>출<sub>출</sub>기<sub>기</sub>어<sub>어</sub>다<sub>다</sub>아<sub>아</sub>나<sub>나</sub>하<sub>하</sub>면<sub>면</sub>百<sub>百</sub>壺<sub>壺</sub>  
에<sub>에</sub>수<sub>수</sub>라<sub>라</sub>심<sub>심</sub>근<sub>근</sub>하<sub>하</sub>나<sub>나</sub>를<sub>를</sub>엇<sub>엇</sub>데<sub>데</sub>보<sub>보</sub>내<sub>내</sub>리<sub>리</sub>오

三十五  
三十五



竹宮時望拜桂館或求仙漢志에祀甘泉宮

天子自竹宮而望拜宮에서時로日라갈

神仙을求하소서 후다 姁女凌波日神光照夜

年 姁女는水銀니鍊丹之藥이라此는

○ 姁女의 물기래凌犯하나리여神光

바 徒聞斬蛟劍無復爨犀船前人

하 技劍斬蛟고温嶠 爨犀의所為어늘비

를 呼도임스며비취여불犀角도임세라니

三



그런 밍그로 애의 야지 우물모다 하니 오솔기  
두드러 물로 건나다 아나 하야가며 오이 통

하도 天寒白鶴歸華表日落靑龍見水中 橋

二柱 日華表 一白鶴 一集遼東華表柱  
하니 靑龍은 言橋影也 一라 〇하늘히서

늘게 늘 白鶴 一華表애 도라 오노 소나 顧我  
히더 거 든 靑龍을 묻가 온더 보리로 다

老赤題柱客知君才是濟川功 司馬相如 柱

事는 見前註 하다 說命에 若濟川이 든  
汝作舟楫 一라 하다 이는 나는 相如 一 〇

다 몬 호나 그 뒤는 傳說곤 도다 나를 시라 〇  
나 늘 도라 본 단 늘 거 기 동애 스는 客 一 아나

로 나 그 뒷자 조는 이 내 홀 合歡却笑千年事  
전 나 는 功인 다 아노 라





扶病招邀屢有期 늘 구에 病은 모은 扶持호

不期約異方乘此興樂罷不無悲 다 른 件

興州도니 즐교문은 다 니

李司馬橋了 늘 어 承高使君의 自成都

迴호

向來江上手紛紛三日成 功事出群은 手紛紛

向來 은 手紛紛

已傳童子騎青竹 揔擬橋東





相覓沽酒不復疑

돈을 아더든 곳서 르어 더 술사물도疑心아니하노

라忘形到甬汝痛飲真吾師

忘形은無威儀禮度이라

구름나주미너나호매니르니 清夜沉

沉動春酌燈前細雨簷花落

물고바디기픈디셔봄술브어

머구름호니봄알뻐기 但覺高歌有鬼

神焉知餓死填溝壑

오직노픈애에鬼神잇는듯호물아디위르

스므라주려주거글형 相如逸才親滌器

雲識字終接閣

이논저죄팔다임스니 放逸

제 조로도親하그르슬시고子雲 一 奇字 先

生早賦歸去來石田茅屋荒蒼苔 澤陶潛이 彰

賦歸去來辭하고棄官歸家하니라 〇 先生

이시거츠儒術於我何有哉孔丘盜跖俱塵

埃 儒術 一 내거키므슴도흔이리이시리오

라不須聞此意慘愴生前相遇且銜盃여구이

말듯고任들슬허티말오사라신제  
기시로마조보매술은어쿨디나라

蘇端薛復筵簡薛萃醉歌

文章有神交有道端復得之名譽早

文章 | 神호미

잇고 사피요이道 | 잇는니端과 愛客滿堂

盡豪傑開筵上日思芳草

上日은正月一日 이라 소늘스랑

하야 지비고下기안젧느니다豪傑 | 로소

中安得健步移遠梅亂插繁花向晴昊

健호壯

히 거름하르빌어더먼뒷梅花 | 른은가다

千里猶殘舊冰雪白壺且試開懷抱

이

○ 서遠梅 | 른은보린시아적수클먹노라호다

○ 千里에호히러넛어름과눈패기러이실



謝方未工才無鮑照愁絕倒

何遜劉孝綽沈約謝眺是皆能

詩者一此是言鮑照一見薛華言一當愁絕而倒地也一何劉沈謝是

詩者一此是言鮑照一見薛華言一當愁絕而倒地也一何劉沈謝是 諸生頗盡

新知樂萬事終傷不自保

諸生頗盡

氣酣日落西風來願

吹野水添金杯

氣運一흐 들게 늘 히 디 고 西

如澠之酒常快意亦知窮愁安

在哉

左傳到有酒一如澠이라 하다 澠水



라窮愁이어忽憶兩時秋并塌古人白骨生

靑苔如何不飲令心衰忽然히비을때그을

호니넷사름뒤힌여에프른이서넷누니엇  
데슬먹디아니꼬모로히여슬흐리우

### 飲中八仙歌

知章騎馬似乘船眼花落井水底眠浙人

馬고喜乘船하니라○知章의 문투의  
비름근하누넷교지높우므래든기든물

미트다汝陽三斗始朝天道逢麴車口流

涎恨不移封向酒泉이논수를해잇는酒泉

亨 亨 다 亨 니 라 ○ 汝 陽 王 온 서 말 수 를 먹 고  
 아 비 르 서 天 子 什 朝 會 亨 니 길 헤 누 록 시  
 른 술 위 를 맛 보 아 든 이 배 추 를 흘 리 고 封 爵  
 을 음 거 酒 泉 郡 으 로 向 亨 디 문 亨 논 이 른 술  
 다 左 相 日 興 費 萬 錢 飲 如 長 鯨 吸 百 川 銜 盃

樂 聖 稱 避 賢 左 相 은 李 適 之 라 酒 清 者 一 為 聖 이 라 適 之 詩 에 避 賢 初 罷 相

亨 고 樂 聖 且 銜 盃 라 亨 다 ○ 左 相 은 날 마 다  
 니 러 萬 錢 을 費 用 亨 니 술 어 구 문 인 고 래

온 냇 물 마 흥 고 티 亨 야 잔 늘 어 구 며 서 문 근  
 술 를 즐 기 고 어 된 사 름 문 避 亨 약 노 라 니 르

中 宗 之 蕭 灑 羨 少 年 舉 觴 白 眼 望 青 天 皎 如

玉 樹 臨 風 前 崔 宗 之 는 조 출 亨 아 름 다 온 제  
 은 소 니 니 잔 을 드 러 서 亨 누 르

로 프른 하느  
일름 알귀  
臨하엿는  
及하도다  
玉樹  
蘇晉長

齋綺佛前醉中  
往往愛處禪  
禪也  
逃去而

蘇晉은 繡  
中에 도  
부렸  
알귀  
피셔  
당상  
齋戒  
하느  
醉中  
에  
도  
므  
리  
므  
리  
에  
逃  
去  
하  
야  
坐  
禪  
호  
미  
니

소  
라  
하  
는  
李  
白  
一  
斗  
詩  
百  
篇  
長  
安  
市  
上  
酒  
家  
眠

天子呼來不上船  
自稱臣是酒中仙  
玄宗  
白蓮

池  
하  
는  
李  
白  
하  
는  
詩  
百  
篇  
長  
安  
市  
上  
酒  
家  
眠

妄  
人  
醉  
後  
說  
不  
知  
天  
子  
呼  
來  
上  
不  
上  
船  
自  
稱  
臣  
是  
酒  
中  
仙

은  
이  
酒  
中  
에  
仙  
人  
張  
旭  
三  
盃  
草  
聖  
傳  
脫  
帽  
露

主詩  
五  
四

頂王公前揮毫落紙如雲烟

漢人張芝一善草書一어든謂

之草聖이라니라○張旭은세간어거든草聖을傳하느니王公人알귀곳갈벗고나

다흐늘어아서부들휘두로다터焦遂五斗方卓

然高談雄辯驚四筵 焦遂는임러도다술醉

○焦遂는文말먹고아외야하로只○미卓然하느니노은말합과雄壯하말슴이四面

人뜻깃사르문늘내느니라

遺田父泥飲位美巖中丞 하더

步彘隨春風村村自花柳 ○彘은草彘也이라



護<sub>호</sub>는<sub>나</sub>다<sub>를</sub> 救<sub>구</sub> 差科死則已誓不舉家走<sub>差科</sub>

差役이라○差科는 주가 아 마르리라 盟<sub>맹</sub> 誓호리라 지비다逃走디 아 나호리라 今

年大作社拾遺能住否<sub>拾遺는 남이라○을</sub>

拾遺는能히 呼婦開大瓶盆中為吾取<sub>呼는 호리라</sub>

블은리 큰瓶을 여러 盆中에 感此氣揚揚須<sub>感는 감이라</sub>

知風化首<sub>風化는 猶教化也</sub> 可<sub>可는 知新尹之風化也</sub>

氣運 揚揚호는 感激호는 나로 語多<sub>語多는 語多라</sub>

雖雜亂說尹終在口<sub>尹의 말은 오로</sub> 尹의 雜亂호

이 때에 이르러 朝來 偶然 出自 卯將 及酉 아 초 리 偶

時로 보러 장차 久客 惜人情 如何 拒隣 叟 고

나 그 배가 외야 소애 入情을 닳가 노니 高聲

ით 데이 우젯한 아 비 른 물 리 와 드 리 도 高聲

索果 栗欲起 時被肘 刺는 爪 소 리 로 果栗을 어

라 하다가 時로 불로 口 指揮 過 無禮 未覺 刺

野醜 指揮 호이 비 무禮 업 빈 아 는 村 野人 出遮 我留 仍嗔 問外 斗 리 와 어 들 귀 서 지 르

로 怒 하야 차 을 어 글 다

上詩十五 四十三





라 淸江 白日 落欲盡 復携 美人 登綵舟

白日 1 디 여 가 기 늘 佐 고 온 사 笛 聲 憤 怒

哀 中 流 妙 舞 逶 迤 夜 未 休 鬢 髮 已 蕭 蕭

니 微 妙 忽 추 들 혔 두 루 처 밤 燈 前 往 往 大 魚

出 聽 曲 低 昂 如 有 求 淸 宮 殿 瓦 碎 瓦 飛 塵 土

호 吹 簫 聲 聞 淸 宮 殿 瓦 飛 塵 土 三 更 風 起 寒 浪 湧 取 樂

喧 呼 覺 船 重 三 更 風 起 寒 浪 湧 取 樂

시 寂 寂 河 漢 光 破 碎 四 座 賓 客

卷之三

色不動言風起浪湧故星河一破碎也

相違迴此言莫違如臨深淵船罷酒上馬歸此言莫違如臨深淵請公臨深莫

相違迴此言莫違如臨深淵船罷酒上馬歸此言莫違如臨深淵請公臨深莫

相違迴此言莫違如臨深淵船罷酒上馬歸此言莫違如臨深淵請公臨深莫

相違迴此言莫違如臨深淵船罷酒上馬歸此言莫違如臨深淵請公臨深莫

相違迴此言莫違如臨深淵船罷酒上馬歸此言莫違如臨深淵請公臨深莫

相違迴此言莫違如臨深淵船罷酒上馬歸此言莫違如臨深淵請公臨深莫

冬末以事之東都湖城遇益

雲卿야復歸劉顥宅야宿宴飲후散후

因為醉歌라

疾風吹塵暗河縣行予隔手不相見

이  
는  
甚  
言  
塵  
暗

之  
狀  
하  
다  
○  
저  
런  
바  
라  
이  
드  
트  
를  
부  
리  
河  
陽  
人  
고  
을  
히  
어  
드  
워  
시  
니  
갈  
티  
는  
사  
라  
어  
손  
고

湖城城南一開眼駐馬

偶識雲卿面湖城人城南偶然이雲卿의누출

아라向非劉顥為地主嬾迴鞭纏成高宴

劉顥  
면  
鞭  
纏  
를  
날  
호  
야  
돌  
아  
와  
노  
흔  
이  
바  
디  
를  
일

上詩十五 四十五

劉侯歡我携客來置酒張燈促華饌

劉侯歡我携客來置酒張燈促華饌

曲終今夕休語艱難尚酣戰

曲終今夕休語艱難尚酣戰

照室紅爐促曙光縈窓素月垂文練

照室紅爐促曙光縈窓素月垂文練

天開地裂長安陌寒盡春生洛陽殿

春將至也一라고洛陽宮殿언치위다고보

미다나 豈知 驅車 復同軌 可惜 刻漏 隨更箭  
 오늘은 曄曄 日 同行 還別이 曄曄도 다 曄曄라  
 ○어느 술 위를 모라 佐자 曄曄 同曄曄고 들알  
 리오 可히 曄曄도 다 漏刻이 更點사 曄曄  
 人生 會合 不可 常庭 樹鷄 鳴淚 如綫 人生  
 다 쇼미 曄曄 다 아 니 하 니 曄曄 曄曄  
 들기 曄曄 曄曄 曄曄 曄曄 曄曄 曄曄 曄曄

鄭駙馬宅宴洞中

主家 陰洞 細烟 霧留 容夏 簾青 琅玕 春酒 盃  
 曄曄 리고 曄曄 曄曄 曄曄 曄曄 曄曄 曄曄 曄曄  
 曄曄 曄曄 曄曄 曄曄 曄曄 曄曄 曄曄 曄曄

濃琥珀薄冰漿枕碧碼碯寒碼碯以琥珀為蓋

과○ 數 수 리 잔 애 듯 거 우 니. 琥珀 이 열고 氷

悞疑茅堂過江蘼已入風磴靄雲端茅堂은

그 들 더 나 아 팔 가 외 오疑心 허 더 니 비 름 自

是秦樓壓鄭谷時聞雜佩聲珊珊秦女弄玉

上 亨 고 鄭子 真 이 耕 於 谷 口 亨 니 此 是 言 公

主 一 在 鄭 駙 馬 家 故 로 間 佩 玉 聲 也 一 라 ○

崔駙馬山亭宴集

蕭史幽棲地林間踏鳳毛

蕭史一姬秦女弄玉乘鳳而去

此是崔駙馬此蕭史也

壯浪流何處入亂石閉門高

浪是回流也

르는 르는 어드러서 드러오느니라

客醉揮

金梳詩成得繡袍

唐武后使宋之問等

得錦袍 詩句 醉 金梳 清秋

多宴會終日因香醪

다운 수레

困호라

鄭駙馬池臺喜遇鄭廣文同飲

不謂生戎馬何知共酒盃

르 볼 주를 엿디 알리 오하니 祿山之亂애 鄭  
處은 여희 옛다가 다시 보고 나르논 마리 타

○戎馬를 나리라 디기 디문하야니 燃臍郡  
어느 속잔 글다 못글고 드알리오

塢敗握節漢臣回

臍하니 比祿山之亡也 一라蘇武 杖節使  
匈奴而還하니 比鄭處이 陷賊中而逃來也

一라 ○빛봉에 불브러 鄜塢이 敗하니 白髮  
節을 차본 漢人 臣下 一도라 오도다

千莖雪丹心一寸灰

言鄭處也 一라 ○현이  
리는 드문 줄기 는 끈고





樂호물어두라 見輕吹鳥毳隨意數花鬚

오가브리들야온것보아드신세터리클블 細草稱偏

坐香醪懶再沽 不니곳다온수를다시사름

게을이하 醉歸應犯夜可怕李金吾 掌夜禁

야리야 醉歸應犯夜可怕李金吾 醉코가매당

당이바물犯하리로소니李金吾 可히저

宴胡侍御書堂 甫 自註李尚書之芳 和鄭秘監審으로同集

라호

江湖春欲暮牆宇日猶微江湖언보이늘기

微微치오히려閣閣書籍滿輕輕花絮飛이득

籍이그도고갯고가비야翰林名有素墨客

興無違翰林은일후야본뒤로깃고글스는

今夜文星動吾儕醉不歸오늬바미하늘해

리무리醉후부도

書堂애飲고既夜이어復邀李尚書야

下馬야月下애賦絕句라호

玉詩五

昆

湖上林風相與清殘樽下馬復同傾  
고름우  
희수프

를렛  
렛  
미서르다  
못문  
기  
렛  
노  
수  
父  
擠

野鶴如雙鬢遮莫鄰鷄下五更  
음  
도  
늘  
기  
세

설이  
설  
이  
너  
기  
다  
아  
니  
하  
야  
비  
리  
며  
밤  
사  
여  
감  
도

민  
민  
곤  
호  
물  
오  
래  
비  
리  
고  
이  
웃  
집  
들  
기

春夜峽州田侍御長史津亭留宴得筵

字

北斗三更席西江萬里船  
北  
斗  
三  
更  
人  
斗  
기  
오  
西  
人

杖藜登水榭揮翰宿春天도

白髮須多도

酒明星惜此筵신머리에 한수를 須求하고

始知雲雨峽忽盡下牢邊下牢는地名이

手의노던석하의와只출서고는歡娛도只

忽然히盡후

陪王侍御宴通泉東山野亭

江水東流去清樽日復斜고東野

五十五

기 已 酒 樽 에 히 在 異 方 同 宴 賞 何 處 是 京 華 中

니 其 와 이 카 디 글 呼 디 호 亭 景 臨 山 水 村 煙 對

浦 沙 亭 子 人 景 은 外 과 必 臨 兮 對 兮 狂

歌 遇 形 勝 得 醉 即 為 家 何 處 不 有 醉 何 處 不 有

두 니 큰 개 지 비  
드 외 옛 도 다

### 宴王使君宅題二首

漢 主 追 韓 信 蒼 生 起 謝 安 將 漢 高 入 關 諸

蕭 何 追 韓 信 蒼 生 起 謝 安 高 卧 東 山 信  
中 亦 為 蒼 生 起 謝 安 漢 人 出 此 韓 信

을 追尋하고 蒼生 謝 吾徒自飄泊世事各

艱難 此는 言不如 韓謝也 1라 0우리 무르

여 金艱難 逆旅招邀 近他鄉 意緒寬 逆旅는 客舍也

1라 0逆旅에 불러야 조미 及가 오 不才甘

朽質高卧 豈泥蟠 揚子애 龍蟠于泥라 하니

업서서서 氣質을 들히 너기 노니 노피 누

汎愛容霜鬢 留歡 1夜 關 1라 0지 1

며 1라 1 歡樂호 1바 1 自吟詩送老相勸

酒開顏네그를이퍼서늘구들보내노라戎

馬今何地鄉關獨在山사호뻬트르이제어

江湖은호올로의陸清月해잇도다酩酊任扶還어

醉근드리리거늘醉고더위자고더위자

宴戎州楊使君東樓

勝絕驚身老情忘發興도호사해서모미

座從歌妓密樂任主人늘구들늘라노니

為안젯는뒤놀애브르노妓女密近호은

水言二三



물<sub>은</sub>任<sub>의</sub>意<sub>로</sub>重<sub>한</sub>碧<sub>을</sub>拈<sub>고</sub>春<sub>의</sub>酒<sub>를</sub>輕<sub>히</sub>紅<sub>을</sub>擘<sub>고</sub>荔<sub>를</sub>枝<sub>에</sub>拈<sub>고</sub>

그<sub>런</sub>木<sub>을</sub>수<sub>를</sub>잡<sub>고</sub>가<sub>의</sub>비<sub>를</sub>얹<sub>고</sub>樓<sub>가</sub>高<sub>라</sub>欲<sub>하</sub>愁<sub>를</sub>思<sub>고</sub>橫<sub>되</sub>

笛<sub>을</sub>未<sub>다</sub>休<sub>지</sub>吹<sub>고</sub>樓<sub>에</sub>노<sub>파</sub>시<sub>를</sub>흥<sub>을</sub>듯<sub>하</sub>나<sub>의</sub>빛<sub>이</sub>자<sub>라</sub>

季<sub>에</sub>秋<sub>에</sub>蘇<sub>의</sub>五<sub>가</sub>弟<sub>가</sub>纓<sub>을</sub>江<sub>의</sub>樓<sub>에</sub>夜<sub>에</sub>宴<sub>을</sub>崔<sub>의</sub>十三<sub>이</sub>

評<sub>한</sub>事<sub>와</sub>韋<sub>의</sub>少<sub>부</sub>姪<sub>의</sub>三<sub>首</sub>

峽<sub>가</sub>險<sub>하</sub>江<sub>이</sub>驚<sub>고</sub>惡<sub>한</sub>樓<sub>가</sub>高<sub>라</sub>月<sub>이</sub>迥<sub>하</sub>明<sub>하</sub>

樓<sub>에</sub>一<sub>번</sub>時<sub>에</sub>今<sub>과</sub>夕<sub>에</sub>會<sub>함</sub>萬<sub>리</sub>里<sub>의</sub>故<sub>향</sub>鄉<sub>의</sub>情<sub>을</sub>

一<sub>번</sub>時<sub>에</sub>에<sub>는</sub>오<sub>래</sub>나<sub>의</sub>集<sub>이</sub>會<sub>함</sub>集<sub>이</sub>이<sub>여</sub>星<sub>이</sub>落<sub>고</sub>黃<sub>을</sub>姑<sub>가</sub>渚<sub>에</sub>秋<sub>가</sub>



紗鳥紗는帽也 | 라이논 돌보노라 울위야니  
곳가리버지 딘시라 오주오 디아니 하야니

서히나옴기 를보노라 곧갈버  
서디오물 온버늘다 버노라

對月那無酒登樓况有江  
수리업서리아

聽歌驚白鬢負笑舞拓秋窓  
拓은手推物也 | 라此는甫 | 自謂라 | 는

에 든고 쉰 귀미 툄 놀라 고우스여 춤치셔고  
음窓을 열

樽蟻添相續沙鷗竝一雙  
樽은 蟻는 添은 相續은 沙鷗은 竝은 一雙은

君醉倒更  
君은 醉은 倒은 更은

覺片心降  
다그 뒤를 사랑 하야 셔 醉 하야 엮  
드로니 죠고 옛 미 降 호를 佐



泓下亦寵吟 이소릿소리 들고물아래이쉬

하하 아기 자바 부소 릿소리 도음 낫다

與鄠縣源大少府宴漢波得寒字

應為西陂好金錢鑿一食 당당이西陂의도

는 훈 반 머 구 飯抄雲子白瓜嚼水精寒 雲子

參 飯 이 라 ○ 바 비 란 雲 子 하 니 를 고 리 無

計回船下空愁避酒難 비를 들 아 느 려 갈 예

호 머 어 려 우 물 호 主人情爛熳持答翠琅玕

맛시름호노라

古詩에主人이贈我靑琅玕이라호니此는  
言主人의厚意를作此詩호야以報之也  
라○主人이쁘디쁘르노고니  
은琅玕을가져對答호노라

和江陵宋大小府一暮春雨後에同諸

公及舍弟宴書齋라호노

渥洼汗血種天上麒麟兒  
○此는比諸公호다  
渥洼는렛의佐

才士得神秀書齋聞  
○此는種類호니오하늘은우  
麒麟의사기로다

雨為書齋에  
○神秀호氣運을어릿호니  
才士호書齋에호니호호호  
를듣노라 棟葉

晴雨好綵服暮春宜  
○常棣之華호宴兄弟之  
詩호綵衣호老萊子호

斑爛衣也 一 常棣八 고 지 관 비 中 朋酒

日歡會老夫今始知 兩樽 日朋 이 라 老夫 是

가 즐겨 會集 ㅎ 노 소 니 늘 근 노 이 이 재 비 로 什 알 와 라

夜宴左氏莊

風林織月落衣露淨琴張 日 露 부 는 午 프 레

새 게 은 이 스 레 조 ㅎ 暗 水 流 花 徑 春 星 帶 草 堂 드 어

문 되 으 른 곳 핀 김 헤 흐 르 고 檢書 燒 燭 短 看

劍引孟長 書冊 은 檢 察 ㅎ 노 라 ㅎ 야 燭 은 人









兵戈 | 오 히 려 누 네 치 는 니  
儒術 은 거 는 모 문 예 흥 리 오  
苦被微官縛低  
頭愧野人  
비 켜 이 리 를 수 계 野人  
을 못 그리

分類杜工部詩卷之十五



山有花

魯有河

自太古

